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10, 팔레스타인 지리

© 2024 로버트 뉴먼과 테드 힐데브란트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관복음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 예수, 유대적 배경, 주석의 서문과 서술적 장르의 주석, 복음서의 저작 연대 특성, 비유의 주석, 문학 작품으로서의 복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놉시스 문제.

이번 세션에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뛰어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특히 복음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개요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지리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관복음의 경우 이는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복음서이다. 먼저 팔레스타인의 물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신약시대 이후 기본 지형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당시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토의 주요 지역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사하고, 그런 다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더 작은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지역을 서-동쪽에서 보는 이유는 주요 지리적 구조가 남북으로 이어지는 띠 형태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서쪽이나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여 나열하겠습니다. 사막. 우세한 바람의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은 지중해에서 습기를 운반했다가 땅이 상승하면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습기를 퇴적시키기 시작하여 공기를 상승시킵니다. 공기 중에서 포화되어 수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는 각 지역의 기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첫 번째 지역은 샤론 평야라고도 불리는 해안 평야입니다. 해안 평야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입니다.

이곳은 매우 낮고 평평한 평원으로, 모래가 너무 많거나 염분이 많지 않은 비옥한 평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이 지역은 물가에 너무 가깝지만 마차나 말이 모래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한 이동하기 쉬웠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쉬웠다. . 이스라엘 주변의 대규모 지리는 남쪽이 이집트이며, 구약시대에는 이집트가 정치적 강대국이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도달할 무렵에는 수세기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 그곳의 해안은 강수량으로 인해 상당히 비옥했으며 , 위로 흘러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계곡으로 바뀌어 이 곳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초승달 모양은 아니지만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모양을 얻었고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의 큰 군사력은 비옥한 초승달의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였습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 알렉산더 제국의 셀레우코스 제국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은 자주 일어날 것이고, 침략은 남쪽의 이집트나 북쪽의 시리아에서 해안 평야에서 비교적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해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는 일련의 남북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다소 높고 다소 구불구불한 지형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비하면 여전히 꽤 낮습니다. 여기에서 중앙 산간 지방을 호출할 예정인데, 이것이 우리의 다음 항목이 될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과 넓은 계곡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동은 계곡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침입하기 쉬웠습니다. 비옥하고 수분도 적당하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팔레스타인 등의 지역은 구릉지라 불리는 곳으로, 다소 날카로운 구릉과 V자형 계곡이 있는 지역이다. 미국 출신이라면 이곳은 아마도 미국 동부의 웨스트버지니아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기후는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계곡은 바닥이 매우 뽀족하고 그 안에 바위가 있고 일반적으로 간헐적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행은 일반적으로 계곡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므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지중해로 내려가는 개울을 건너서 늪지대를 얻을 수도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해안 평야에서의 여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지대, 또는 이전에 이름을 붙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셰펠라(Shephelah)는 더 구불구불하여 두 지역 모두 여행할 수 있지만 여기 산간 지방에서는 적어도 차량 통행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전혀 여행을 하지 않고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야 하고, 심지어 걸어서 여행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침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침략자들은 그 지역에 진입하기 위해 언덕을 올라가야 했고, 고대 전쟁에서 탱크와 동등한 전차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부들은 이 지역이 농사를 짓기에 그다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재료의 구조상 기본적으로 석회암이었고, 위로 올라갈수록 테라스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층은 기본적으로 수평이어서 언덕 가장자리에 작은 조각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부들은 외부 가장자리를 따라 돌을 놓고 토양이 쌓이도록 하거나 심지어 이를 따라 토양이 쌓이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를 조작했습니다. 곡물을 재배하기에 좋은 지형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곡물을 재배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 등을 재배하는 데 꽤 좋습니다.

이 구릉지대 서쪽은 지중해에서 습한 공기가 들어와 언덕을 타고 흘러가는 곳이고, 습도도 좋고 강수량이 많아서 오히려 좋은 곳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능선에 도달하면 지중해에서 공기가 올라오고 일정량의 수분을 버린 후 일반적으로 능선을 올라갈 때 이제 능선을 넘어 공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공기가 따뜻해지면 상대 습도가 상당히 낮아지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선의 동쪽에 소위 비가 내리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로키산맥에서 나타납니다. 이곳 이스라엘에서처럼 서쪽으로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서쪽에서 우세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쪽에서 우세한 바람이 불어오는 온대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키산맥의 가장자리를 넘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뜻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로키산맥 동쪽의 강우량은 다소 적습니다.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Great Salt Lake)는 매우 건조한 지역 전체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글썄, 그것은 당신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주 능선 서쪽에는 강우량이 많지만 주 능선의 동쪽에는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런 다음 구릉지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남북 지역에도달하는데, 그곳을 리프트 밸리(Rift Valley)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라는 용어로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케냐에도 중요한 리프트 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는 동일한 균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균열은 레바논 위쪽에서 레바논 중앙을 거쳐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요단강 평행선을 따라 흘러갑니다. 사실 요단강은 리프트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사해를 지나 아카바 만과 그 아래 홍해로 내려가는데, 그건 홍해가 아니고 어쨌든 아카바 만이고, 계속해서 내려가 아프리카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난 60년, 대략 50년대부터 발견되고 해결된 대륙판 시스템의 두 판으로 인한 지질학적 균열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이는 실제로 다소 깊은 단층이며, 사해에서 사해 표면은 실제로 해수면보다 1,000피트 이상 낮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600피트 아래에 있고, 서쪽에서 온 이 공기가 균열을 넘어, 산간 지방을 넘어 그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솟아오른 강이 있는데, 위쪽 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강은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곳 아래의 기후는 일반적으로 매우 덥고 강에서 멀리 떨어져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현대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관개를 했고, 고대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적어도 일종의 관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 우리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생각해 볼 영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중해가 있고, 해안 평야가 있고, 세펠라 즉 낮은 구불구불한 언덕이 있고, 언덕 지대와 열곡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열곡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부르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트랜스요르단 고원. 그리고 트랜스요르단 고원은 실제로 구릉지보다 더 높아서 다시 올라오는 공기가 냉각되고 실제로 압축되어 그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기의 습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능선 동쪽으로 투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습도가 다시 오르고 나머지는 버려지지만 트랜스요르단 고원에 도달한 후 몇 마일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라비아 북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막이나 시리아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쪽 가장자리에서는 물이 꽤 잘 공급되지만 동쪽으로 몇 마일만 가면 매우 사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영토를 빠르게 둘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 평야, 구불구불한 지대, 세펠라, 산간 지대, 계곡, 리프트 밸리, 그리고 트랜스요르단 고원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 몇 가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리프트 밸리 바로 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상당히 빠르게 도달합니다. , 해발 9,000 피트가 넘는 곳이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그것은 안티-레바논 산맥(Anti-Lebanon Range)이라 불리는 곳의 가장 남쪽에 있는 큰 봉우리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리프트 밸리는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으로 이어지며 계곡 서쪽에는 레바논 산맥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고 동쪽에는 안티 레바논 산맥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정상은 일반적으로 일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 갈릴리에 올라가면 보통 그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가면 갈릴리, 즉 영토권이라 불리는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릉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체의 구릉지의 연장선입니다. 단, 거기에서 분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예루살렘 주변과 같은 유대 지방의 산간 지방의 일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들어올 때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습한 공기에서 들어오는 물이 언덕에 습기를 버리는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위도 효과도 발생합니다. 온대 지역의 바닥 끝 부분에 가까워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수량이 다소 적은 지역에 이르지만 갈릴리 위쪽에는 강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미국 동부의 강수량과 거의 동일하므로 연간 강수량이 40~50인치 인 경우 원할 경우 이를 미터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므로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가 있습니다. 산간 지역의 기후는 적당히 시원하지만,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면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서 꽤 따뜻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지역에서 타보르 산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고립된 봉우리이고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습니다. 해발 1,900 피트가 넘습니다. 해발 9,000피트에 있는 헤르몬 산과 비교하면 하나는 2,000피트에 약간 못 미치고 다른 하나는 9,000피트에 달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다음에 언급할 지역인 이스라엘 계곡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에서 올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헤르몬 산, 여기 상하 갈릴리,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계곡이요, 때로는 에스드라엘론 평야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거의 동서 계곡입니다.

실제로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지만, 남북보다는 동서 방향이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해안과 요르단 계곡을 연결합니다. 남쪽의 사마리아와

북쪽의 갈릴리를 나누는 곳으로, 실제로 지중해에서 지구대까지 접근하기 가장 쉬운 교통 통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갈릴리를 건너야 하고, 그 아래로는 산지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계곡을 직진하면 지형이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특정 지점에서 해안에서 내부로 넘어가는 중요한 무역 경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의 남쪽 가장자리에는 갈멜 산이 있고, 그 산맥은 그곳에서 동쪽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계곡의 남쪽 면에 있는 긴 능선은 다시 이스라엘 계곡과 마찬가지로 대략 동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최대 높이가 약 1,800피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헤르몬 산보다 훨씬 낮지만 실제로는 다불 산과 같은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 범위는 남북 여행에 장벽이 되며,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해안 평야로 올라오는데, 이 갈멜 산 근처에 오면 해안까지 끝까지 가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실제로 지중해에 튀어나온 갈멜산 끝자락으로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돌아와서 두세 개의 고개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통행 통제는 고대에 군사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며, 사실 로마는 파르티아 제국에 들어가기 위해 지중해 동쪽 끝의 모든 것을 통제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통행 통제가 군사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므깃도 시는 이 고개 중 하나에 있으며, 계시록의 아마겟돈은 실제로 므깃도 언덕인 하므깃도를 변형한 것이며 그러한 고개 중 하나를 관리합니다. 사실 므깃도 북쪽 평야는 군사 역사에 걸쳐 많은 주요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습니니다.

이제 남쪽으로 뛰어가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같은 곳을 건너 유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약지 지역입니다. 그것은 요르단 강의 서쪽에 있고 리프트 밸리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곳은 실제로 산등성이의 비 그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황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곳이 사우스다코타의 황무지를 많이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언덕이 많지만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나무 수준에는 약간의 관목이 있고 우기에는 풀도 있습니다. 글썄요, 이것은 낮은 강수량의 조합, 즉 산간 지방을 따라 흐르는 이 산등성이의 비 그림자에 있는 지역입니다. 비 그림자와 다소 백악질인 토양의 조합은 측면에서 충분히 나쁜 지역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식물에.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역사를 통해 이곳은 유목민들이 계절에 따라 들어와 풀이 자라는 동안 양 떼를 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지역을 떠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습한 겨울철에 양을 방목하고 염소를 방목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언급할 또 하나의 지역은 구릉지대 남쪽입니다.

그 산간 지방은 결국 예루살렘 남쪽에서 어느 정도 끝나게 됩니다. 네게브(Negev)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남부로 번역합니다.

나는 지금은 다른 현대 역본들이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헤브론 시 남쪽의 건조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30~40마일 정도 내려가면 헤브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입니다.

영토는 평평하게 굴러갑니다. 사실 토양은 꽤 좋은데, 지금은 위도 영향으로 북온대 바닥을 벗어나면 원할 경우 강수량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잠시 멈춰서 지구의 여러 구역을 살펴보세요.

적도 지역이 있고, 그 양쪽에 열대 지역이 있고, 그 양쪽에 온대 지역이 있고, 북쪽 지역에 더 아북극 유형이 있습니다. . 온대 지역과 적도에 가까운 지역 사이의 전환에는 강수량이 다소 적습니다. 따라서 네게브 지역은 구불구불하거나 평탄하며 토양이 꽤 좋고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고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일부 주민들은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를 통해 특정 유형의 트릭을 통해 물을 농축했습니다. 많은 장소에 빗물을 모으는 계곡이 있을 것이며, 그러면 빗물은 빠르게 흘러 계곡 바닥에 흙을 쌓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다음 물은 계곡의 낮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기본적으로 계곡 바닥에 댐을 설치하면 잠시 동안 물이 고여 흘러나온 미사를 모두 모아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 미사 지역. 일년에 2인치, 3인치, 4인치 정도의 비가 내리는 반면, 작은 농경지를 바닥에 내려 놓고 훨씬 더 넓은 지역의 강우량을 집중시켰습니다.

글쎄, 그것은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에 대한 일종의 빠른 여행입니다. 해안에서 안쪽으로 이어지는 남북 지역, 서동쪽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개별 지형 중 일부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의 주요 수역에 대해 한두 마디 말해보세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선원은 아니었지만,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거나 향료를 가져오는 선원들이 어느 정도 중개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 등에서 나온 다른 물건들도 있고, 그래서 가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무역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많은 지중해는 실제로 서쪽으로 1,500마일 더 떨어진 지브롤터를 통해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리스나 페니키아에 비해 천연 항구가 거의 없고, 페니키아는 지중해의 동쪽 해안에 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중개인으로만 무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수역에는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 또는 긴네렛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양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마도 길이가 7x14 마일 정도 되는 작은 호수, 담수 호수, 표면 해수면보다 600피트 낮아서 미국의 데스 밸리(Deat

h Valley)보다 낮습니다. 요르단 강은 기본적으로 헤르몬 산 지역에서 물이 흘러나와 다른 강으로 흘러들어가면 여전히 요르단 강으로 간주합니다. 갈릴리 바다 쪽에서 리프트 밸리 아래로 계속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기잡이에 중요한 곳이었지만, 그 특유의 지형과 기후로 인해 맹렬한 폭풍이 몰아칠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지름이 몇 마일에 달하는 호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중해나 다른 것과는 달리 상당한 파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큼니다. 동쪽에는 뜨거운 사막이 있고, 북동쪽으로 9,000피트에 헤르몬 산이 있고,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리프트 밸리가 있고, 서쪽에는 더 높은 지형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중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기상 시스템이 있고, 여기 산 주변에 차가운 공기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있고, 종종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한 매우 맹렬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지중해,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르단 강이 있습니다.

강은 헤르몬 산의 낮은 경사면에서 시작하여 약 100마일에 걸쳐 약 2,300 피트 내려갑니다. 강의 모든 구불구불한 부분은 세지 않고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헤르몬에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 사해로 내려갑니다. 로마인들이 아스팔트 호수라고도 부르는 사해는 표면이 해수면보다 1,296피트 낮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개를 위해 많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릴리 바다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대의 일종의 깊이, 일종의 고도였으며 대규모 관개 프로젝트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물은 극도로 짜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사람들은 그것이 피부에 자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물에 수영하러 가면 코르크처럼 떠다니게 됩니다. 원한다면 특이한 현상.

이곳의 물과 소금 퇴적물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종류의 광물, 특히 이런저런 종류의 소금을 얻기 위해 채굴되었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주변의 주요 수역을 빠르게 둘러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 즉

남북 지역과 주요 수역의 이 작은 개별적인 독특한 지역은 모두 고대와 동일합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 북쪽의 아주 작은 호수인 메림 호수라는 한 가지 항목을 빠뜨렸을 것입니다. 이 호수는 제가 40년대 후반부터 본 지도 중 일부에 여전히 존재했지만 유대인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농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었고 이제는 물이 아닌 농지가 되었기 때문에 땅을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특징은 신약 시대 이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일어난 변화나 현재의 변화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시대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정치적 분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유대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은 이어지는 영토입니다. 때로는 지중해에서 멀리까지 뻗어 있지만 이번에는 해안에서 조금 돌아와서 중앙 능선을 넘어 달려갑니다.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북쪽과 남쪽을 둘러싸는 중앙 산간 지방. 그곳은 유다 지파의 옛 영토였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그것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알려진 북쪽의 사마리아와 그 이름으로도 알려진 남쪽의 이두매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나 흔히 유대라고 불리는 일종의 행정 단위였습니다. 분명히 유다의 변형이다. 그곳은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통치했던 영토의 일부였으며, 나는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의 기록을 내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종말점에 대해 몇 가지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4년부터 약 86년까지 헤롯의 아들 아르켈라오스에 의해 헤롯의 유언을 확인하고 수정했을 때 통치되었고, 그 후 6년부터 41년까지 로마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고, 그 다음 41년부터 44년까지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44년부터 66년까지 다시 로마 총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 지역의 인구는 대부분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는 일부 사마리아인을 포함하여 대부분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두매는 대부분 에돔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베오 시대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는데 이곳은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이스라엘 북부 지파 중 일부의 영토였으며, 앗시리아인들이 북부 왕국 등을 점령한 후 마카베오가가 지배하게 될 때까지(160년에서 63년까지)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곳에 유대인들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조상들이 나사렛 지역으로 다시 이주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헤롯 대왕 이 죽은 후 그의 영토가 그의 의지에 따라 분할되었을 때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서 기록에 기원전 4년부터 서기 39년까지 등장합니다. 39년부터 41년까지의 로마 총독, 그리 길지 않은 기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41년부터 44년, 그리고 다시 로마 총독에 의해.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를 혁명가들의 온상으로 여겼고, 확실히 거기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문제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고, 로마인들은 확실히 1세기 후반에 유대 반란으로 이어지면서 그 지역의 혁명가들과 문제를 겪었습니다.

요르단 강 동쪽의 좁은 지역은 아마도 그리스 파리아에서 유래한 페레아라고 불렸으며, 신약 시대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제 생각엔 갈릴리의 상황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곳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마카베오 시대까지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그 후 다시 사람이 거주했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통치자들이 있어서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에는 이곳이 그의 영토였고, 그 영토가 나누어졌을 때에는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갔고, 처음에는 안티파스와 헤롯 아그립바가 없었을 때에는 그것을 판결한 다음에는 로마 검찰관들이 그것을 판결했습니다.

헤로디아 왕조의 통치를 받았던 또 다른 영토가 있는데, 오늘날 그것은 일반적으로 필립의 사분정국, 즉 이테리아 라고 불립니다. 안트라콘염(Antiraconitis)은 주어진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동쪽의 다민족 지역이었으며, 대부분 이방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 그가 그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기원전 4년부터 서기 34년까지 그의 아들들 중 또 다른 사람인 빌립이 그곳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총독들과 헤롯 아그리파가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에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역 중 일부는 그 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아마도 4,000명을 먹이신 일과 일부 기적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해야 할 다섯 번째 지역은 라틴어로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데카폴리스(Decapolis)라고 불리는 지역이지만 단지 10개의 도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전체 행정 운영은 아마도 고대 근동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 주변의 도시가 지배하는 영토였을 것입니다. 데카볼리 도시는 일반적으로 10개의 헬레니즘 도시로 구성된 연맹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의 수는 실제로 일부 증가했다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영토입니다 . 이제 우리는 이들 도시 중 몇몇의 영토에 갈릴리 바다 해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들은 낚시를 공유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그들만의 부두와 어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데카볼리는 대부분 이방인 거주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레니즘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들어온 후, 마카베오 시대가 끝난 후 이곳은 유대인의 지배에서 독립되었으므로 결코 헤롯 대왕이나 그 후손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의 영토, 정치적 영토를 빠르게 둘러보세요.

우리는 서기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몇몇 도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언덕 지대 산등성이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서 서쪽으로 너무 멀리 가지 않고도 내려다볼 수 있었고 아마도 지중해가

있는 저 멀리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별로 눈에 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고 실제로 사해도 볼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광야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대와 팔레스타인의 종교적 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헤롯은 분명 그곳에 자신의 궁전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그의 유일한 궁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겨울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3,000피트 가까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훨씬 좋았고, 심지어 마사다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헤롯의 요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은 동쪽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이곳을 유대의 수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를 직접 건설했는데, 팔레스타인에는 천연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약간 캐러멜이 튀어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헤롯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공 항구를 건설하고 물에 거대한 돌을 넣고 시멘트를 사용하는 데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시멘트는 우리가 아는 한 로마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서 얻었을 수도 있고 그들은 물속에서 건조되는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멘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흘러내리는 일종의 큰 부두를 만들고 배를 끌어들이 수 있는 잔잔한 물의 지역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 그곳에서 폭풍을 이겨낼 수 있었고 으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헤롯 대왕 통치 기간 동안 중요한 항구가 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로마인들이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나 총독 등이 유대를 통치할 때 그들은 이곳을 수도로 운영했습니다

...

그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도시였고, 사실 로마에 대한 유대인 반란의 발발은 폭동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가이사랴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대결을 말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일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은 그곳에 궁전이 있었고 로마 총독도 그곳에 궁전이 있었으며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비문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가이사랴 극장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소 중요한 도시는 북왕국의 수도가 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헤롯 대왕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것을 재건하고 그것을 이름을 세바스티아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투스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성 전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주변에 있었던 당시에는 율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만 있었고 세바스티아는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훨씬 더 명시적으로 언급했는데 왜 라틴어 아우구스투스 대신 그리스어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군대 퇴역 군인들을 위해 재건되었습니다. 헤롯의 용사들과 그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세 번째 도시인 티베리아스는 또 다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 총을 쏘고 살해된 율리우스, 왕위에 오른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그의 양자인 조카라던가 티베리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영토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건설하였고, 갈릴리 해변에 건설하고 그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철자는 끝에 있는 황제 Ius와 도시 Tiberias를 위한 것입니다

그곳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과 꽤 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그곳에서는 그분이 어느 때든 그 도시에 계셨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안디바 외에 다른 상속자 중 하나가 빌립이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 지역, 즉 여기 북동쪽 갈릴리 바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다시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가이사랴 와 혼동하지 않고 고대의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의 가이사라라고 불렀고 그 이름은 현대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이사라를 구별하기 위해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헤롯이 건설한 초기 가이사라 또는 때로는 가이사라 마리티마, 바다 위의 가이사라, 다른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헤롯의 수도로 건설되었는데, 그 지역 위쪽에 요단강 상류와 꽤 가까운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도시의 번호를 매겼는데, 어떤 때는 10개 이상이고 어떤 때는 10개 미만이었습니다. 나는 방금 제 학생들에게 그 중 다섯 개를 주었는데, 그것은 신약성서나 요세푸스의 글, 스키타이인의 도시인 스키토폴리스에 가끔 나타나므로 그 역사에 대해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

말의 이름을 딴 하마, 그렇군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다라 귀신들기에 등장해야 할 대체 이름 중 하나인 가다라(Gadara)는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서 살펴볼 구절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타나는 다른 이름 중 하나 인 Gerasa .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아마도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피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애의 도시인 것입니다. 동부에 사시거나 필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여기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데가볼리 도시들 중 일부일 것입니다. 갈릴리의 마을들, 아마도 도시들은 그것을 조금씩 추진할 것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요새화된 도시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출신지인 나사렛은 구약성서에 명시적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 예언과 관련하여 우리가 언급한 네처 구절이 있습니다. 가나, 막달라, 가버나움, 고라신, 벳새다.

막달라, 가버나움, 고라신, 벳새다, 모두 기본적으로 갈릴리 바다 해안에 있고, 가나와 나사렛은 일종의 갈릴리 산간 지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외에 유대의 일부 성읍들. 여리고는 확실히 구약시대에도 중요했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옛 여리고와 새 여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는 이 특별한 맹인을 고치신 방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오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납니다. 새 여리고는 멋진 곳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세리 삭개오가 살았던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전통적인 도시였으며 아마도 적어도 마태가 생각했던 도시일 것입니다. 유대 도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건너편 베다니.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은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거의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곳은 어느 정도 불확실합니다. 엠마오는 여러 곳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곳은 베들레헴 북서쪽입니다.

따라서 서기 1세기의 팔레스타인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수도인 가이사랴.

세바스티(Sebastii), 헤롯의 용사들을 위해 재건된 구약의 사마리아. 갈릴리의 수도 티베리우스.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의 사분정치의 수도.

이 두 수도는 갈릴리 마을과 유대 마을입니다. 몇 가지 주요 도로에 대해 한두 마디: 내가 아는 한, 신약 시대에 나온 이 도로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갈 세 가지 도로에 대해 사용할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토론은 성경 연구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이름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확실히 지역 역사의 초기 시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이름은 실제로 이사야서의 한 구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바다의 길(Way of the Sea)인 마리스를 경유해서(via Maris)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좋은 설명 용어입니다. 그것은 해안에서 나오지 않고 해안과 평행하고 이집트에서 내륙으로 몇 마일 떨어진 다음 갈멜 능선 바로 남쪽에 있는 해안 고속도로였습니다. 갈라져서 한 부분이 서쪽으로

올라가서 해안에 머물렀고 그 다음 두로 와 시돈 등으로 올라가서 결국 안디옥으로 가서 그 방향으로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그 지점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므깃도 고개를 지나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고 디베료를 지나고 그리고 올라가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요 남북 해안 도로였으며 확실히 바다로 가지 않는 상당한 양의 무역 교통을 운반했습니다.

확실히, 많은 무역 교통이 해안을 따라 흘러 항구나 다른 곳으로 들어온 다음 아마도 환적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두 마디 말하고 싶은 두 번째 길은 이것과 다소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리프트 계곡을 건너 트랜스요르단 고원에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은 왕의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왕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그러나 트랜스요르단 고원을 따라 흐르고 정상에 있는 아카바 만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그것을 홍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선적된 물품이 그곳의 항구로 올라온 다음 육로로 왕의 항구로 올라갔습니다. 대로는 데가볼리의 몇몇 도시를 지나 다메섹으로 향하며 다메섹에서 출발하는 모리스 가도와 왕의 대로는 메소포타미아 계곡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도시들, 팔미라 같은 것, 그리고 서쪽, 동쪽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실례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 여행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사용했던 세 번째 길은 산등성이를 따라 머물렀던 길이므로 우리가 Ridge Route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교통에는 덜 중요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포장도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했듯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결점을 안고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다소 중요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그 반대로 축제를 위해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초조하거나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신 내려가서 리프트 벨리로 내려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었다가 다시 올라오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두 종류의 길을 모두 봅니다. 그럼, 세 가지 주요 도로를 빠르게 둘러보세요. 분명히 더 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비아 모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르단을 건너 왕의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고, 다른 두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따라 있는 장소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해 논의할 때 헤롯왕의 요새가 있습니다. 헤롯이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위대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건축 활동 때문이며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주요 건축물은 그의 것이며, 가이사랴의 세바스찬의 주요 건축물은 그의 것입니다. 헤브론은 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 성전 매장지입니다.

모두 헤롯의 것이었고 그는 요새도 몇 개 건설했습니다. 그는 첫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로마 제국은 자기 동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끝났고, 그곳 동쪽에는 꽤 강한 나라인 파르티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그의 경력이 시작될 때, 그다지 시작은 아니었지만,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직전에 파르티아인들이 침략하여 그를 죽였고, 음, 그의 형을 붙잡아 투옥했습니다. 내 생각에 에베소서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에베소인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 것 같습니다. 헤롯은 도망쳤기 때문에 헤롯은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이 어느 정도 후반이 되었을 때,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아직 별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 후에도 여전히 걱정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걱정할 만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여러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마케루스 에 요새를 건설했으며,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곳은 세레 요한이 처형된 장소입니다. 세레 요한은 아마도 저기서 참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요한을 죽인 헤롯인 헤롯 안디바의 영토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때쯤 사라져서 어린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해 서쪽에 마사다가 있었고 마사다는 마케로스 와 마사다는 둘 다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헤롯의 궁전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후퇴할 수 있는 곳을 원했고 포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반란이나 터지는 일에 대해 몸을 굽히는 동안 그의 모든 왕실 특권. 사해의 서쪽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굴되었으며 그 위에 두 개의 궁전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메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 남서부 영어로 추측컨데, 꽤 가파른 고원입니다. 한쪽에는 사해가 있고 서쪽에는 사해로 내려가는 다양한 와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꼭대기에 서쪽 궁전을 지었고 북쪽 끝에는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좀 있어서, 그의 북쪽 궁전과 최근 발굴 작업을 통해 아직 남아 있는 다소 정교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의 궁전이었으며, 그가 죽은 후 유대 반란 당시 열심당원들의 손에 넘어갔고, 사실 이곳은 그들이 로마인에 대항하여 최후의 저항을 펼쳤던 장소였습니다.

로마인들은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73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마사다를 포위하고 연기로 태워버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마사다의 열심당원들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 헤롯의 세 번째 요새는 헤로디움(Herodium) 이라고 불리는 요새입니다 . 그래서 헤롯은 겸손하게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베들레헴 남동쪽에 있는 언덕을 가져다가 그 꼭대기를 쌓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실제로 약간 화산처럼 보이고 거기에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의 퇴각 궁전이었고, 그 아래 언덕 기슭에는 덜 위험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 이후 수년 동안 헤롯의 무덤이 그곳에 있었다고 이해되어 왔으며, 그 증거가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헤롯의 시신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헤롯의 무덤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한 우리의 여행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해 몇 마디 말하고 싶으므로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내용을 우선 자연적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계곡과 예루살렘 주변의 언덕으로 다시 나눌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 중 일부의 좋은 흔적, 그리고 도시의 다양한 구역, 그리고 예수 시대에 거기에 있었던 특정 주요 건물과 구조물 및 사물의 몇 가지.

따라서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산등성이에 있지만 일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방향으로 요새화하기가 꽤 쉬웠지만 북쪽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을 따라 내려가는 계곡이 있고 그 바닥을 가로질러 힌놈 계곡이라고 합니다. 이 계곡은 꽤 깊은 계곡으로 한때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게힌놈 계곡이 되었습니다. 힌놈의 모습은 유대인의 지옥 사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번역이 어떤 식으로든 번역하지 않는 한 신약성서에서 가끔 보게 될 용어인 게힌놈(Ge-Hinnom)이 바로 이 특별한 용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 불리는 꽤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는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을 때 감람산을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 아마도 성전 단지의 동문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드론 계곡은 겿세마네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겿세마네 동산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세 번째 계곡이 있습니다. 일몰 무렵에 찍은 항공 사진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요세푸스의 계곡은 티로포이온 (치즈 메이커 밸리)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그 히브리어가 정확히 무엇이였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문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성의 동쪽에 있는 성전산과 다윗이 원래 예루살렘을 정복한 곳의 남쪽 영토와 위쪽 성읍이 있던 예루살렘의 서쪽 부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계곡은 현재 꽤 많이 채워져 있지만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계곡들입니다. 예루살렘도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간지대에 있고, 계곡 등이 많은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몇몇 중요한 언덕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그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는 사실 지금의 성전이 있는 곳 남쪽 언덕에 있는 다소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라고 불리며 오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그 이름의 역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따라서 성전 남쪽 지역이지만 동쪽의 기드론 계곡과 서쪽의 티로포이온 계곡 사이의 이 언덕 위에 여전히 오벨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게 된 언덕은 성전이 있던 곳인 모리아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의 희생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다지 확실하지 않지만 성경 자료에서 그 방향에 대한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관련하여 시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원래는 오펠이나 모리아였을 것이고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중세 시대에는 서쪽 언덕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 원한다면 위쪽 도시로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에 가겠다는 말을 하면, 택시 운전사에게 시온산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원하시면 오펠이나 성전터가 아닌 그 곳으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언덕은 도시 외곽에 있는 올리브 산으로, 아마도 도시에서 동쪽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산등성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광야의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쪽, 동쪽으로는 광야를 내다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훨씬 더 많은 초목이 우거진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인 감람산을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상부 도시의 언덕은 치즈메이커스 밸리 건너편 오펠 서쪽에 있고 오펠이나 모리아보다 높기 때문에 감람산에 서서 도시 건너편 서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면 이 영토가 거기 더 높게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중세 시대에 시온이라고 불렸지만 아마도 잘못 식별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주변의 언덕과 계곡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성벽입니다. 이 성벽 중 일부는 여전히 서 있거나 동일한 일반 선과 기초 위에 세워진 성벽을 가지고 있으며, 성벽은 계곡을 대략 따라가므로 사람이 도시를 공격할 때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올라와야 합니다. 벽에 붙어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쪽 성벽은 일반적으로 기드론과 힌놈 골짜기가 함께 흐르는 곳을 둘러싸서 도시의 티로포에온 골짜기를 둘러싸는 것과 같습니다 .

여기가 힌놈 골짜기이고 여기로 내려오는 기드론 강이 있는 이 쪽 남쪽 성벽입니다. 동쪽 성벽은 성읍 동쪽의 여기 기드론 골짜기로 가십시오.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 성읍이 있고 동쪽 성벽은 기드론 골짜기 경사면 위로 성전 동쪽을 따라 있습니다. 힌놈 골짜기의 서쪽 성벽, 그러나 그것의 동쪽은 힌놈 골짜기의 도시 쪽에 있으므로 그 성벽은 아마도 더 큰 도시가 존재했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나 그와 비슷한 시대 직후부터 건설되었지만 의심할 바 없이 여러 차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북쪽에는 실제로 그것을 보호하는 좋은 계곡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더 멀리 나가는 여러 개의 벽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북쪽 벽은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북쪽으로 조금 뻗어 있다가 다시 돌아서 힌놈 골짜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힌놈 골짜기는 실제로 우리가 옴바 문이라고 부르는 곳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북쪽 벽은 분명히 그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도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북쪽 벽은 기본적으로 성전 바로 위에 있는 율바 문에서 동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북쪽 성벽은 거기서부터 뺀어나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으로 돌아오므로 성의 북쪽을 조금 더 넓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쪽 셋째 성벽은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으므로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교외 지역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곳에서 그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오늘날 그랬고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시작되었고, 로마 황제가 그것을 중단하라고 했을 때 그는 중단했고, 그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반란 중에 끝났습니다.

그 길은 성전 동쪽에서 북쪽으로 기드론 시내로 올라가서 방향을 틀어 율바 문으로 내려오므로 북쪽 벽이 세 개였습니다. 이 벽 세트는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아래, 성전 남쪽에는 다윗의 옛 도시, 그가 정복한 영토, 여부스의 옛 도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펔 언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성전 산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며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도시가 있고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 지도 제작자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대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곳과 그것이 티로포에온 계곡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펔의 서쪽과 여러분이 도시에 오르기 전에요. 도시의 서부 상부, 상부 도시, 하부 도시. 위쪽 도시, 이어지는 이 언덕은 여기에 티로포에 온 계곡이 있고, 여기 서쪽에 있고, 힌놈 계곡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특정 지역, 즉 위쪽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에는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사이에 둘째 구역이라는 영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성벽 사이에 새 도시 또는 베제다 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으므로 이 두 영역은 모두 도시 북쪽으로 확장됩니다. . 신약 시대의 일부 주요 건물과 구조물.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로 생각하는 성전 단지인 성전 단지를 가지고 있지만, 헤롯 대왕이 적어도 기원전 20년경 성전을 개조하려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세워진 큰 단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깨달았습니다. 그 모리아 언덕 주변에서 그랬던 것처럼 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확장하고 싶은 것을 건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처음에는 500큐빗 정사각형이었던 땅을 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성전에서 남겨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원에서 남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확장하면 일종의 더 긴 직사각형이 생기고 이 플랫폼의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원하신다면 테라스가 있고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쪽에는 티로포 에온 계곡 바닥까지 꽤 긴 절벽이 있었고 사원은 정확한 중앙은 아니지만 대략 중앙에 서 있었고 어쨌든 삼면, 양면에 지붕이 있는 열린 현관 길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왕의 현관이라 불리고, 동쪽은 솔로몬의 현관이라 불렀습니다. 내 생각에 솔로몬의 주랑은 아마도 솔로몬이 원래 성전에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보다 늦었지만, 왕실 주랑은 아마도 헤롯이 지은 것이지만 이름을 보면 추종자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광고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성전 건물이다. 그래서 뜰이 있는 단, 이방인의 바깥뜰, 그리고 큰 뜰은 여자의 뜰이고 그 안에 계단을 올라가면 아주 좁은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서서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 위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제사장의 뜰을, 그리고 다시 그 안의 성전 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플랫폼은 아마도 동서로 약 750피트, 즉 약 500큐빗, 남북으로 약 두 배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은 랍비 문헌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크기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성전 플랫폼의 크기를 상당히 늘렸습니다. .

성전 바로 북쪽과 서쪽, 그리고 실제로 그 옆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는 적어도 헤롯과 신약 시대에 재건되었으며 로마 수비대가 사물을 감시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원 축제는 때때로 로마인에 대한 일부 숭배자들의 불만이나 그와 유사한 불만으로 인해 이런 저런 종류의

폭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바로 그곳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안토니아 요새는 예수-로마 재판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재판이 헤롯의 궁전에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옹바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던 예루살렘 성의 서쪽 문을 옹바 문이라 불렀으며, 그 문에는 방어용으로 큰 망대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파르티아 침공 중에 사망한 헤롯의 형제 파사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 가장 좋아했던 아내 마리암네(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하나는 그의 친구인 히파르코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옹바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탑 중 하나인 아래쪽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방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옹바 문 타워 바로 남쪽에는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의 궁전이 있는데, 헤롯이 그 장면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로마 총독이 그 도시에 있었을 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로마 총독과 같은 정치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재판 장소. 따라서 빌라도가 여기 아래 있었다면 그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 축제에서 다른 이유로 사용되었다면 빌라도는 안토니오 요새보다 안토니오 요새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두 후보입니다.

산헤드린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성전 근처나 단상 어딘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랍비 문헌에서는 이곳을 다듬은 돌의 전당(Hall of Hewn Stones)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아마도 금요일 아침 빌라도가 자신의 형을 입증하도록 예수를 데려가기 전 예수를 정죄한 장소일 것입니다. 홀리랜드 호텔의 예루살렘 모델은 히포드롬(Hippodrome)이라는 전차 경주 경기장을

배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스어로 말 막대입니다. 영화 벤허(Ben-Hur)를 본 적이 있다면 매우 실제처럼 보이는 히포드롬이 있습니다. 양쪽 끝이 급회전하는 긴 직선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 문화의 경마장처럼 멋진 큰 타원형이 아닌 긴 직선 도로, 그 다음 급회전, 긴 직선 도로 등이 있습니다.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Ben-Hur에게 문의하십시오.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티로포에온 계곡(Tyropoeon Valley)에 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정 모델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Josephus는 또한 예루살렘에 극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특징 모두 훨씬 더 헬레니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전통적인 유대인 종류의 것들이 아니었고 그 위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극장에 대해 생각할 때 영화관을 생각하거나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스와 로마 극장, 특히 그리스 극장은 일종의 반원 모양이었는데, 종종 언덕을 깎아 돌을 사용했습니다. 콘크리트도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관람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따라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구조로 실제 모델은 20세기에도 극장과 각종 경기장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저런 종류의 연극을 공연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 작가들은 헬레니즘 유대인 중 일부가 실제로 에스겔에 관한 희곡과 그런 종류의 희곡을 구성하여 이교 희랍 희곡이 아닌 종교 희곡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희곡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연극을 하고 매우 음란한 로마인이 장난을 칩니다. 다른 일부 사이트는 베데스다 못인 예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저는 사람을 찾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적어도 그분은 물의 움직임 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가장 좋은 본문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 아마도 난외주 같은 것이 그것에 관한 메모를 입력한 것으로 보이며 확실히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절름발이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5개의

현관이 있는 연못, 현관은 덮힌 현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통 양쪽에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사원 바로 북쪽과 안토니아 요새의 북동쪽에서 꽤 깊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잔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파내어 외부 주위에 4개의 현관이 있고 중앙에 하나가 있는 웅덩이가 있어 2개의 웅덩이로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믿음은 그것이 베데스다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앓은뱅이를 고치신 특별한 장소가 일어났습니다. 사역에는 또 다른 못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실로암 못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신 곳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셨고, 실로암 못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또는 그것이 있는 곳은 성전의 남쪽, 약간 남쪽, 성전의 약간 서쪽에 있습니다. 티로포 에 온 계곡 바로 아래, 티로포에 온과 힌놈이 모이는 도시의 남쪽 끝 근처 , 그것도 발굴되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다른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거행되었습니다. 글쎄요, 전통적인 다락방 유적지가 있는데 2층인데 문제는 요세푸스의 설명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는 2층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이트 근처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전통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관광객으로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곳의 건축물은 내가 건축가가 아닌 고딕 양식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므로 분명히 십자군 시대입니다. 가야바의 집, 아마도 예수께서 일종의 예비 심리를 위해 끌려가셨던 곳, 어쩌면 그곳의 산헤드린 일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어퍼 시티(Upper City)에 있었고 이를 위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밤새 죄수로 갇혀 있었다고 주장되는 작은 동굴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그것은 몇 세기 후에 일종의 기독교인의 성지였지만 그들이 올바른 장소를 찾았는지 여부는 확신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겐세마네는 감람산 기슭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감람원입니다. 다양한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를 갈보리나 골고다로 인도합니다.

제가 이 강좌를 처음 가르쳤을 때 2개에서 현재 소유권이 주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이트는 3개입니다. 전통적인 것은 성묘 교회인데,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1,500년 동안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후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갈보리가 있던 곳과 무덤이 있었던 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어도 서양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화려해 보여서 좀 꺼려질 정도입니다.

찰스 고든(Charles Gordon) 장군이 제안한 장소인 고든의 갈보리(Gordon's Calvary)가 있는데, 아마도 예수 시대의 갈보리의 모습과 더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역사성에 반하는 강한 증거입니다. 그곳의 무덤은 복음서에서 조셉 아론 테아(Joseph Aaron Thea)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무덤은 아니지만, 이 무덤은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며, 신약 시대에는 수세기 전입니다. 어니스트 마틴(Ernest Martin)은 전통적인 날짜에 상당히 가까운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를 제안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5년의 지난 몇 세기 동안 사용된 날짜와는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기원전 1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2년에는 올리브 산 부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갈보리 산에 서 있던 백부장이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기본적으로 주장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그것이 본문에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예루살렘 동쪽, 즉 성전이 실제로 향하는 방향에 두었습니다. 올리브 산에서. 그는 역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유형학적 이유를 들어 붉은 암송아지를 도살한 장소 근처에 두었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글쎄, 그것은 빠른 여행이다.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더 많이 있습니다. 테드가 지리학, 고고학,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많은 부분에 관해 좋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공관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강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